

# 평동산단 '융접특화단지' 신규 지정 추진

### 광주시, 첫 운영위서 뿌리산업 고도화 논의 AX·DX 전환사업 기반 전문인력 양성 박차 '친환경표면처리특화단지' 해제 등 추진도

광주시가 자동차·가전 등 지역 주력 제조업의 기반을 이루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11일 광산구 평동산단(사)한국금형산업진흥회 국제회의실에서 '광주시 뿌리산업 특화단지 운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평동산단 '융접특화단지' 신규 지정 신청 △'금형특화단지 지원사업' 공모 신청 △'친환경표면처리특화단지' 해제 신청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광주시 뿌리산업 특화단지 운영위원회

는 지역 뿌리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고도화 전략 마련을 위해 구성된 협의기구다. 위원장인 김일태 전남대 교수를 비롯해 특화단지 관계자와 산업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평동산단단지 내 '융접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오는 13일 신청할 계획이다. 융접·접합 기술은 미래차와 가전 등 지역 핵심 산업의 품질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공정으로 평가된다. 특화단지



광주시는 11일 광산구 평동산단(사)한국금형산업진흥회 국제회의실에서 '광주시 뿌리산업 특화단지 운영위원회' 첫 회의를 가졌다.

로 지정될 경우 관련 기업 간 협력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공동 활용시설 구축과 공동 연구·혁신 활동을 위한 국비 지원 기반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지역 대표 뿌리산업인 금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 공모에도 나선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 전환(AI)과 디지털 전환(DX)을 기반으로 한 전문인력 양성과 데이터 기반 공동 마케팅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금형 기업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 금형 설계 인력은 최근 5년 사이 514명에서 190명으로 약 60% 감소하는 등 인력난이 심화된 상황이다. 광주시는 금형특화단지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지난 2018년 지정된 운영 중인 '친환경표면처리특화단지'는 기업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해제하기로 했다. 시는 향후 기업 입주 상황과 산업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시는 평동산단단지 20만 1000㎡(약 6만1000평)를 금형특화단지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융접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통해 뿌리산업 특화단지 체계를 한층 확대할 계획이다.

융접특화단지는 4월 평가를 거쳐 5월 뿌

리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6월 최종 지정 고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형특화단지 지원사업 역시 4월 평가·신청을 거쳐 5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김일태 위원장은 "뿌리산업은 광주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가전의 품질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 산업"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뿌리기업들이 AX·DX 시대에 맞는 스마트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현 광주시 미래차산업과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모 신청과 특화단지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상반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 뿌리산업 혁신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전남 제조업 바닥 찍었나...1년만에 지수 반등

### 1차금속·석유정제 부문 등 호조에 1.0% 증가 광주 생산·수출 3개월 연속 증가...소비는 부진

광주의 제조업 생산과 수출 등이 3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소비는 감소했다. 전남은 1년 만에 생산이 증가로 돌아섰다.

1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광주·전남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의 광주지역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2.3% 증가했다.

전자부품(47.7%), 자동차·트레일러(24.6%) 등이 늘면서 지난해 11월(9.6%)과 12월(2.6%)에 이어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9.4%가 늘었는데 전자전기(42.1%)와 자동차 등 기계류(25.2%)가 성장을 이끌었다. 수출 역시 지난해 11월 56.5%, 12월 27.5%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다.

수입도 전자전기(45.5%)를 중심으로 36.9%가 증가했다.

건설투자에서 건축착공면적은 상업용(2969.8%)을 중심으로 대폭 늘어 전년

동월 대비 2637.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축허가면적은 2.2% 증가했다.

대형소매점 판매는 백화점은 2.1% 증가했으나 대형 마트가 20.6% 줄면서 전년 동월 대비 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은 비임금근로자가 4100명 줄었지만 임금근로자가 8100명 늘어 전년 동월 대비 4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실업률은 4.6%로 전년 동월 대비 0.6%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남은 제조업 생산이 제1차 금속(2.5%), 코크스·석유정제(0.3%) 등이 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했다. 이에 전남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진 부진을

끊고 증가로 전환했다.

반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1% 감소했는데 선박 등 기계류(-45.8%)와 화학공업제품(-6.9%)이 줄어든 게 원인이었다.

수입은 원유(-17.6%)를 중심으로 10.4% 감소했다.

대형소매점 판매도 전년 동월 대비 2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투자는 건축착공면적이 공업용(136.9%)과 주거용(169.7%)을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08.9%가 늘었지만 건축허가면적은 12.1% 줄었다.

고용에서는 임금근로자(3300명)와 비임금근로자(9200명) 모두 줄어들면서 전년 동월 대비 1만2500명 감소했다. 실업률도 1.2%p 상승해 6.3%를 기록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 김치 유산균, 장내 나노플라스틱 배출 가능성 규명 세계김치연구소, 발효 미생물 환경·건강 활용 가능성 제시

김치에서 분리한 유산균이 인체 장내에 유입된 나노플라스틱과 결합해 체외 배출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에서 분리한 유산균이 장내 나노플라스틱과 결합해 체외 배출을 촉진할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1마이크로미터(μm·1μm는 1000분의 1mm) 이하 크기의 초미세 입자로, 식품과 음용수 등을 통해 인체에 유입될 수 있다. 크기가 매우 작아 장을 통과해 신장과 뇌 등 체내 장기에 축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장내에서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생물학적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세계김치연구소 이세희·원태웅 박사 연구팀은 김치에서 분리한 유산균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Leuconostoc mesenteroides) CBA3656'을 활용해 폴리스타이렌 나노플라스틱(PS-NPs)에 대한 흡착 특성을 정밀 분석했다.

연구 결과 일반 조건에서 CBA3656은 87%의 높은 나노플라스틱 흡착 효율을 보였다. 비교 균주인 '라티락토바실러스 사케이(Lactilactobacillus sakei) CBA3608'의 흡착률(85%)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사람의 장 환경을 재현한 모사 용액에서는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CBA3608의 흡착률이 3%에 그친 반면 CBA3656은 57%의 흡착률을 유지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이는 실제 장과 유사한 조건에서도 해당 유산균이 나노플라스틱과 안정적으로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연구팀은 무균(germ-free) 마우스 모델을 활용한 동물실험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했다. 유산균을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해 CBA3656을 투여한 실험군에서 수컷과 암컷 모두 분변 내 나노플라스틱 검출량이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해당 유산균이 장내에서 나노플라스틱과 결합해 체외 배출을 촉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는 김치 유래 유산균이 발효 기능을 넘어 환경 유래 미세 오염물질과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평가다. 연구팀은 향후 장내 축적 저감 효과와 작용 기전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세희 박사는 "플라스틱 오염이 환경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 문제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통 발효식품 유래 미생물이 새로운 대응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김치 미생물 자원의 과학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국민 건강 증진과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환경·바이오자원 분야 국제 학술지인 'Bioresource Technology'(농업공학 분야 1위·IF 9.0)에 게재됐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해남 산이정원 'ESG 페스티벌' 100년 정원 주제...내달 11~12일

전남 해남에 위치한 산이정원이 전남도 ESG협회와 함께 지속가능 가치를 실천하는 문화행사로 '제2회 ESG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자연과 사람, 세대가 어우러지는 정원 공간을 기반으로 ESG 가치를 확산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행사는 오는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산이정원 일원에서 열린다.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가치를 정원이라는 공간에서 체험하고 공유하는 지속가능 문화축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이정원은 행사 추진을 위해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인 고석규 위원장을 선임했다.

지역사회와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ESG 가치 확산에 힘을 모으겠다는 취지다.

이번 행사 핵심 프로그램은 '100년 정원'을 주제로 한 기념식수 행사다.

단순한 식목 행사를 넘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지속가능한 정원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기념식수에는 사단법인 숲속의 전남도 참여해 ESG 가치 확산에 힘을 보탠다. 행사 기간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ESG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커피믹스 재조합 체험 등 생활 속 ESG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어린이 축하 공연과 정원 버스킹 공연도 펼쳐져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산이정원에서는 봄맞이 만개하는 시기에 맞춰 '봄맞이 페스타'도 함께 열린다.

방문객들은 계절의 변화가 담긴 정원을 산책하며 꽃과 자연이 어우러진 정원 풍경을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코스피, 5609.95...코스닥은 약보합 코스피가 11월 1% 넘게 상승해 5600선에 다시 올라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126.1p(2.28%) 오른 5658.72로 출발 77.36p(1.40%) 오른 5609.95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5746.36까지 올라갔지만 오후 들어 이란 전쟁 관련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오름폭을 줄였다. 코스닥은 17.80p(1.56%) 오른 1155.48로 출발했지만 0.85p(0.07%) 내린 1136.83으로 종료됐다. 연합뉴스

## LH, 광주전남 건설·매입임대 1580가구 공급

### 광주 각화동 영구임대·영암군 학산면 행복주택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광주와 전남지역 건설·매입임대 1580가구 등 전국에 3만7000여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공급 물량은 지난해 3만1000여 가구보다 6000여가구(19%) 증가했다. 주택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전체의 약 57%인 2만1000여가구를 공급한다.

광주·전남의 경우 매입임대 1240가구, 건설임대 340가구로 총 1580가구를 임대한다.

12일 단 하루 동안 광주 각화동 영구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과 영암군 학산면 행복임대주택 예비자 모집 접수 등이 있다. 이처럼 수시로 접수가 이

뤄지기 때문에 모집공고를 잘 확인해야 한다.

건설임대주택은 LH가 공공택지 등에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올해 전국 48개 단지에 영구임대 632가구, 국민임대 1469가구, 행복주택 6778가구, 통합공공임대 2790가구 등 총 1만1669가구가 공급된다.

서울대방 행복주택(61가구), 고양 창릉 A4 행복주택(297가구), 과천시 식정보타운 S-12 행복주택(1424가구), 성남금도 A2 국민임대(438가구) 등 수도권 주요 거점지역이 포함됐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우수 입지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임대주

택으로 2만573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올 상반기 중 전체 물량의 48%(1만2000여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생 등 주거 수요 변화에 대응해 청년 3200여가구, 신혼 부부·다자녀 5300여가구, 저소득층 7600여가구 등 수요 맞춤형 공급을 진행한다.

이밖에 소득·자산 요건과 관계없이 무주택 요건만 갖추면 입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을 700여가구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6000여가구도 지원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돕는다.

매입임대 모집 방식은 기존 정기공고에서 지역별·주택별 여건을 반영한 수시공고 체계로 전환해 공급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 광주연구원, 시민참여형 '작은연구 지원사업' 공모 시민 작은연구·신진연구자 정책연구 등 2개 분야

광주연구원은 시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지역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2026년 광주 시민참여형 작은연구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의 생활 현장 목소리를 정책 연구에 반영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지원 대상과 연구 성격에 따라 '시민 작은연구'와 '신진연구자 정책연구'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시민 작은연구' 지원사업은 광주 지역 생활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진연구자 정책연구' 지원사업은 석·박사 학위 과정 중이거나 학위 취득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신진 연구자(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광주와 관련된 연구 주제라면 참여할 수 있다. 연구 분야도 행정과 산업, 경제, 인구, 청년·일자리, 교육, 주거, 환경, 기후, 문화·예술, 관광, 교통, 공공서비스, 복지 등 광주 정책 전반을 포괄한다.

광주연구원은 접수된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참신성과 연구 체계성,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에는 연구비가 지원되며, 시민 작은연구는 과제당 최대 300만원, 신진연구자 정책연구는 과제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 자문도 제공된다. 참여자 전원은 광주연구원 '명예연구원'으로 위촉되며, 연구 종료 이후에는 평가를 통해 우수 연구자를 시상하고 성과보고회를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